

전북도, 2500억 규모 국지도 착공...교통망 확충 속도

순창~구림·부전~칠보 구간 개선 교량 12개소·장대터널 등 포함 하반기 착공 앞두고 현장 점검

전북도가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국지도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며 전북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2일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와 부전~칠보 국지도 시설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공정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둔 국지도 건설사업의 현장 여건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토지 보상과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2,51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으로, 교량 12개소와 장대터널 등이 포함돼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효과가 기대된다.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는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월정리를 잇는 국지도 55호선 9.14km 구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211억 원이 투입

되며 교량 6개소 설치와 도로 선형 개선 등이 이뤄진다. 해당 노선은 강천산과 섬진강권 관광지 접근도로 기능을 맡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와 도로 협소 문제로 정비 요구가 제기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접근성 향상과 물류 이동 효율 증대, 주민 통행 편의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부전~칠보 국지도 시설개량공사'는 정읍시 부전동과 칠보면 시산리를 잇는 국지도 49호선 10.92km 구간을 순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2억 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겨울철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계속된 곳으로, 사업을 통해 교량 6개소와 터널 1개소가 들어서면 통행 안전성과 이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별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하고, 도로구역 변경, 편입 토지 보상, 공사·감리 용역 발주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간 연결도로 기능 강화와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생활권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민주당 믿어주신 도민의 위대한 승리"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 "도민 체감 성장 일궈낼 것"



이원택 당선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당선자는 3일 "오늘의 승리는 이원택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믿고, 민주당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주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에 소감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

이어서 "전북은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AI 혁명과 재생에너지, 농생명 바이오, K-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K-컬처, K-푸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100년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전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전례로 순간에도 끝까지 원칙을 지켜 주셨고, 민주당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전북다운 선택으로 그 자부심을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태세 강화 2(題)

도, 완주 하천 재해복구 현장 점검 장선천·괴목동천 공정률 60% 이상 우기 전 우수 저장물 우선 철거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일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과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우기철 대비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은 공정률 65%,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은 공정률 60%를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는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 주요 구조물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범람 위험을 높

일 수 있는 가도 등 우수 저장물을 우선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방수포 덮기, 툰마대 설치 등 꼼꼼한 임시 보강 조치를 통해 재난 피해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속적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우기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등 모든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기 전 모든 예방 조치와 저장물 철거를 신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문화·관광시설 안전점검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 확인 태풍·집중호우 피해 예방 총력

전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문화·관광·체육·유산 분야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3일 밝혔다. 도는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문화·관광·체육·유산 분야 시설 18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취약시설 15개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정읍과 부안, 김제 지역 문화·체육·관광·유산 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점검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의 전기·소방시설과 노후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 체험시설인 정읍 천사하어 로즈와 순환열차, 녹두장군 캠핑장에 대해서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국가유산인 부안 김상만 고택과 김제 벽천미술관, 내아 등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성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화암사와 장수향교, 진안 수선루 등 동북권 문화유산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도와 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후속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관광·체육·유산 시설은 도민의 여가와 문화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인 만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시장이 되어 '하나 된 익산'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하며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며, 실제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을 오직 익산의 재도약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기업이 찾아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활력 도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익산 대전환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보여주듯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행정을 시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멈춰 있던 익산의 시간이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산의 새로운 새벽은 오늘부터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게, 더 뜨겁게, 더 책임 있게 일하며 겸손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위대한 익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자랑스러운 새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익산이 다시 힘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김영목기자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소감 "익산 대전환 열겠다"



최정호 당선인

익산이 다시 됩니다.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 새 익산의 시작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최정호에게 익산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최정호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참체된 익산을 깨우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위대한 익산 시민 여러분의 존엄한 명령이자 승리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매일같이 거리에 나서며 시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먹고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달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익산의 자부심을 되찾아달라" 하셨던 그 절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선과 본선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다른 선택을 하신 시민 여러분의 뜻 또한 무겁고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오늘의 승리 앞에 기쁘보다는, 익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먼저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갈라진 익산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익산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도,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익산 시민입니다. 익산시장 최정호는 특정 정영이나 지지층의 시장이 아니라, 27만 익산 시민 모두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익산의 발전 앞에는 정치적 편도, 지역적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 서셨던 분들의 뜻과 비판, 고언까지도 겸허히 수용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인권경영 인증 6년 연속 획득

전북개발공사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올해도 갱신, 2021년 최초 인증 취득 이후 6년 연속 인증을 이어갔다. 공사는 지난 5월 29일 (주)한국경영인인증(KMR)의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이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국제인권규범과 국가 인권정책을 반영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이번 심사에서는 인권경영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 점검, 개선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인권경영 현장 제정, 인권영향 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교육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아우르는 인권준중 경영체계를 구축하며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고객 및 협력업체 권리 보호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6년 연속 인증 유지는 임직원 모두가 인권존중의 가치를 조직문화 속에 내재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당선



김의겸 당선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발탁됐던 김 후보는 재임 시절 현대차 9조 투자 유치 과정을 실무적으로 직접 이끌며 행정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김의겸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했던 현대차의 새만금 9조 투자 유치를 완벽하게 인수하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요 핵심 공약으로는 ▲현대차그룹 9조 원 새만금 투자 완수 ▲군산 AI·로봇 산업 메카 조성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완전부활 등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어르신 온돌동네 케어 시스템 구축 ▲중장년층 맞춤형 사업 지원 및 의료비

절감 ▲신시도-야미도 80만평 관광특구 조성 ▲군산조선소 완전부활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발표했다. 김의겸 후보는 당선 확정 직후 소감을 통해 "군산에 찾아온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라는 천금 같은 기회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성과와 일 자리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고 또 일하겠다"라며 "말이 아닌 실행과 성과로 군산 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증명해 보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기억 해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도로 모퉁이 5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인도

전주시 시민 건강증진 정책 확대

예방 중심 노인 구강보건사업 강화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며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시보건소는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과 치매안심치과 협약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보건소는 “구강질환은 전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도 밀접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노인세대

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가정과 시설을 방문해 △구강 상태 점검 △구강 위생 관리 교육과 틀니 관리 △구강건강 예방 △구강 마사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다.

특히 방문 구강 관리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치과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치매환자의 경우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위험이 높고, 구강건강 악화가 영양상태와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저소득 노인의 치료비 부담 완화 위한 노인 의치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의 시민들의 구강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사업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린이·청소년 대상 구강 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 등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법적 담배’ 규제 적용



개정법령·현장중심홍보·계도 추진

앞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담배와 같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규제적용은 지난 4월 24일 적용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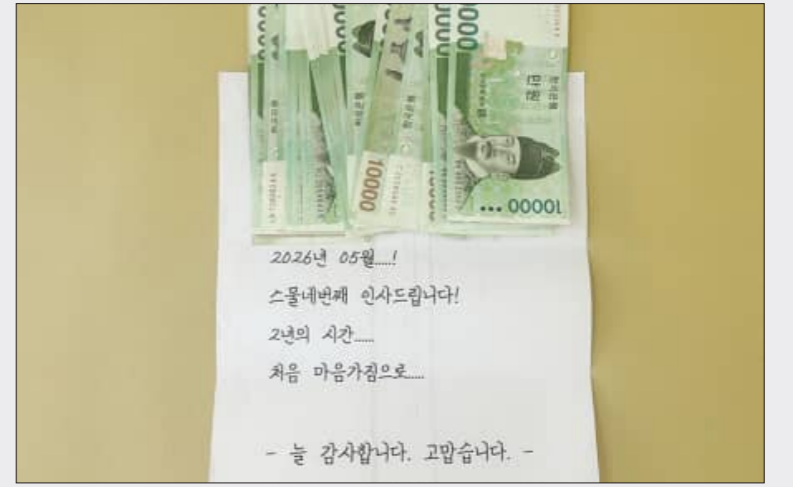
최근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건강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금연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관련해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개정 법령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 인후3동 익명기부자 ‘24번째 인사’

2년간 지속된 이웃사랑 실천

6월 시작 동시에 하안편지봉투가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날아왔다.

이에 인후3동 조정란 동장에 따르면 “전달된 하안편지봉투는 익명의 기부자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하안편지봉투를 전달 받은 센터관계자들은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편지봉투를 개봉했다.

봉투 속에는 “스물네번째 인사드 리네요”란 글씨 써 편지와 함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었다.

이러 조 동장은 “이 익명기부자의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

됐다”고 말했다.

익명기부자 그는 인후3동에 매월 빠짐없이 기부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쌓인 그의 누적성금은 총 812만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기부자 성금은 2025~2026년도 관내 아동·청소년 18세대에 게 각 3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원됐다.

지원된 장학금은 관내 아동·청소년 학업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고명환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혁신 의료가기 연구개발 의료가기 임상시험센터 구축



이끌며 국내 K-의료가기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가기 법 제정·공포일을 기념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고명환 교수는 2009년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가기임상시험센터의 부센터장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국

과과제인 의료가기중개임상시험센터 구축 과제의 연구책임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산학연병 공동협력 연구에 매진해 170여편의 논문과 63건의 의료가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이전 5건, 의료가기 국제 협력연구 50여건 등으로 국내 의료가기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2023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인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아 AI, 로봇, 가상현실 등 혁신 미래기술을 이용한 의료가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동

연구팀에서 개발한 가상현실 기반 통증 진단기가 2026년 미국 CES에서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고명환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고 감사하다. 모두가 지금까지 공동협력연구를 같이 해온 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가기 관련 산학연병 공동협력 연구에 매진해 국내 의료가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신임 남영우 임명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남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남영우 차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근무하며 국토·도시개발 정책 수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인물이다.

그는 또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윌라메트대 경영학 석사 및 충북대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특히 기술고시 30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 집중 단속

6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혜택

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이

후 오는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해 미등록 반려동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동물보호법 제 101조 제3항 제4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을 마쳤을지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불을 분실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한편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면제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참여 당부

소화기·감지기·완강기 등 점검 11월 30일 이후 과태료 부과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가스 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입주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받는 제도다.

세대점검은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특히 관리주체와 입주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 방법은 입주인은 관리사무소에

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탈락·손상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상태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출하면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세대점검을 높이기 위한 △안내문 배포 △공동주택 계시관 계시 △가스감기 모니터 송출 △관리업 안내 △공식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올덴그린스테이 기자단 ‘그린트레블러’ 모집

‘내돈내산’ 숙박하고 5만원 돌려받는 친환경 여행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주지속협)는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올덴그린스테이 기자단인 ‘그린트레블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구도 함께 쉬는 숙소’라는 전주올덴그린스테이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여행 문화를 확산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와 전주지속협은 친환경 여행을 실천할 시민 참여자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주올덴그린스테이 참여 숙박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자단은 필수미션으로 전주올덴그린스테이 참여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숙박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과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친환경 여행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 후기 콘텐츠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기자단에게는 친환경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웰컴키프트가 제공된다. 웰컴키프트는 탄소중립 여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로웨이스트 칫솔과 대중교통 카드 등이 포함된다.

기자단은 오는 28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GT4WYT7B)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블로그 정보 확인 후 선정이 이뤄진다.

선정된 기자단은 해당 기간 내 숙박하

고, 2주 이내에 1000자 이상의 블로그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필수미션과 후기 작성을 완료한 기자단에게는 원고비 5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여행을 계획 중인 관광객에게 친환경 여행 경험과 여행 경비 절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참여자 후기 공유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조사

기간: 2026. 6. 4.(목) ~ 7. 30.(금) / 8주간 | 대상: 덕진구 이동탱크저장소 158개소

조사내용	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원부 및 허가사항 비교 확인 • 상치장소 등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확인 • 소유권 변경 및 용도폐지 신고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승계 신고: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도폐지 신고: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덕진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조사

등록정보·상치장소 집중 점검

전주덕진소방서가 4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소유권 이전이나 용도폐지 이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물 운송차량을 확인해 도로 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158개소 대상으로 위험물 민원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정보와 실제 운영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등 허가사항 비교 확인, 상치장소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여부 확인, 소유자 변경 및 용도폐지 신고 여부 점검 등이다.

또 상치장소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탱크저장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폐차나 구조변경 등으로 위험물시설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직권 용도폐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허가대상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정보를 정비해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경진원, 전북 마을기업 판로 확대 지원

‘부산국제식품대전’ 참가... 국내외 유통 바이어에 우수성 알리

전북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마을기업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된 부산 국제식품대전에 참가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129개 마을기업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참가한 부산국제식품대전은 전국 각지의 식품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식품 전문 박람회로, 식품을 비롯해



<사진=전북경진원>

친환경·유기농 제품, 급식 및 식품 설비, 커피/음료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운영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약 420개사 830부스 규모의 전시 부스가 마련돼 참가 기업들의 활발한 홍보와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쌀강정, 한과, ABC주스 등을 생산·판매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7개소가 참여했다.

참가기업들은 홍보부스와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또한 경진원은 참가 기업들의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부스 설치에 필요한 내부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마을기업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국내 유통 바이어와 영남권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개별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경진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오프라인 박람회 참여 지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경진원 사회적경제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지방선거 안전 강화

투·개표소 특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6.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전을 위해 전국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남화영 사장은 전주시 소재 한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투표소와 전주화산체육관 개표소를 지난 2일 방문해 전기안전관리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기사고로 인한 투표·개표 예방과 국가 주요 선거시설 전 기설비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사 임직원들은 점검에 관해 투표·개표소 내 주요 전기설비 이상 여부

를 확인하고,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전국 1만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선거 당일에는 전국 240개 개표소와 선거상황실에 공사 전문인력 458명을 배치해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투표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전기사고로 인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핵심 연구성과 시각 콘텐츠 전환

영상 및 연구보고서 공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일 생성형 AI 활용한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영상 6편과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39종을 공개했다.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는 생성형 AI 활용에 제작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복잡한 수치와 이론을 영상 콘텐츠로 풀어내어 국민이 연구보고서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수행한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분야 연구 39종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 6개를

선정했다.

고용연장 시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과제: 해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국민연금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중·고령층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성과평가 등이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자 이번 AI 영상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구성과를 단순히 기록서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수행한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분야 연구 39종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 6개를

/김영태 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홀로그램 기업 13개사와 협약

제품 제작 지원 및 기술 실증·사업화 연계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지난 2일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일환인 ‘제품 제작 지원 사업’ 선정 13개 기업들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홀로그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업들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AI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프링 동작 분석 △실감형 전시·홍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홀로그램 산업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마지막 연차로 실제 시장 적용과 사업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제품 제작 지원과 함께 실증 연계, 전시·홍보, 판로 확대 등 후속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시장 진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그동안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홀로그램 기술 활용 기반을 확대해 왔으며, 전시 및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기술 확산을 지원해왔다.

또 8·15 광복절과 연계한 홀로그램 상설 전시관 운영을 통해 대국민 체험 콘텐츠 확산에도 힘써왔다.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제품 제작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연구개발(R&D) 성과의 산업 현장 적용과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AI·XR 등 가상융합기술과 연계한 차세대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향후 국가 공모 및 대형 실증사업 유치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은 “홀로그램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AI 및 가상융합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성과 창출과 시장 진출 지원, 후속 대형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 본격화

중기부는 지난 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20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현판수여식 및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해 지역 중심 산업 스타트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 등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부터 매년 200개사 내외를 선정해 현재까지 804개사를 육성 중이다. 특히 비수도권 신규 기업 선정 비율이 '23년 28.7%에서 '26년 35.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과 글로벌 기술·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기존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으로 분야를 확대 개편해 현장 수

요와 산업 변화에 맞춰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0개사를 모집했고 16.8:1 높은 경쟁률(일반공모 기준)을 기록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원의 기술개발 자금 등 총 12억원을 직접지원 받는다. 또 투자·수출 등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개방형 혁신,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3년 연속으로 글로벌 유니콘이 탄생했으며 13개 기업이 677억원의 투자유치, 17개 기업이 기술 상장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농산물 선박 수출 늘린다”

‘시에이(CA) 수출·품질 관리 프로그램’ 공개

농산물 선박 수출 기술인 시에이(CA) 기술의 현장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품목별 시에이(CA) 수출 조건과 혼합 선적 가능 여부, 수출 전후 품질 관리 정보를 한데 모은 ‘원예작물 시에이(CA) 수출·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신선 농산물 시에이(CA) 수출 기술은 수출 컨테이너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

호흡과 품질 저하를 억제하는 선도 유지 기술이다. 장기간 수송 과정에서도 신선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항공 수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그동안 주요 신선 농산물의 시에이(CA) 수송 조건을 연구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환경 조건 30종, 수출 모형(모텔) 8건을 확립했다. 실제로 수출 품목은 딸기, 참외 중심에서 포도, 멜론, 수박, 고구마 등으로 확대됐다.

안정적 기술 확보로 수출국도 일본, 홍콩 등 5개 나라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 나라로 늘었다. 연도별 지원 건수는 2022년 29회, 2023년 71회,

2024년 88회 등 2025년 기준 누적 250건을 기록했다.

특히 참외는 예비 냉장·포장 등 복합 품질 관리 기술을 적용해 싱가포르 선박 수출에 성공했으며 손실률을 일반 선박 25~40%에서 1% 이하로 낮추고, 물류비를 항공 대비 40~60%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진청은 그동안 축적한 시에이(CA) 수출 연구 성과와 현장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원예작물 시에이(CA) 수출·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출 품목과 시기, 나라, 예상 수출 기간을 입력하면 작물별 적정 온도와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적체 순서, 품질 관

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여러 품목을 한 컨테이너에 실을 때, 혼합 가능 여부와 알맞은 수송 조건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딸기, 참외, 멜론,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구마, 대파, 시금치, 잣, 상추, 버섯, 국화 등 20개 품목의 수출 품질 관리 정보를 실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연구성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 프로그램 공개로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품목별 시에이(CA) 선박 수출 조건을 손쉽게 확인하고, 수출 전 품질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태 기자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8% 상승’

공급 확대·할인지원 등 수급안정 전력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에서 전체 물가는 전년비 3.1%, 농축산물은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양배추, 당근, 양파, 배추 등 대다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0.8% 하락했으나 쌀, 대파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당 62원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할인 지원과 함께 산지 유통업체 수요 신청 등을 감안해 필요시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파는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한 생육 지

연 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다만, 6월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양배추, 당근, 양파, 배추 등 일부 농산물은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시장격려, 수출지원 및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5.8% 상승했다.

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가능 물량이 감소하고, 수입쇠고기는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와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최근 호흡기 질환 등의 영향으로 1등급 이상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정의 달 수요가 겹쳐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가공용 수요 분산을 위해 돼지고기 가공원료

육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계란과 닭고기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확대와 증체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1~4월 입식량이 크게 늘어난 계란은 7월 이후에는 생산 여건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량 회복 전까지 수입 신선란을 지속 공급하고 추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할인지원 연장과 농협 납품단가 인허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닭고기는 여름철 수요에 대응해 종계 살처분 규모 수준의 부하용 종란을 수입하고 가공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향후 출하되는 고령지배추 등 농산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작황도 양호해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

축전염병 등으로 공급이 감소한 축산물도 7월 이후에는 공급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의 생육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도 찾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생육동향과 출하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기 시에는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식품·외식은 전년 대비 각각 0.8%,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안정적인데, 농식품부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지방조달청장>

전북지방조달청, 현충탑 참배

김형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제71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지난 2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 시간을 빌어 김 청장과 전북지방조달청 임직원들은 임실호국원 묘역을 돌아보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수 청장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보훈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제1회 추경 2619억 증액

고물가 대응... 학교 현장 지원 및 급식실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 집중 투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2619억 원 늘어난 4조 705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운영비 등 현장 지

원에 75억 원,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및 학습준비물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89억 원을 배정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인공지능(AI) 미래 인재 양성 기반 조성에도 79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학교 신설 및 증축, 급식실 환기 시설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가장 많은 1748억 원을 쏟는다.

이 밖에도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족분과 목적 지정 사업 이행을 위한 필수 경비 628억 원을 반영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고물가 속 학교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교육 현장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 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성민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말 상설행사' 운영

6일부터 10월까지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6일부터 10월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주말상설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근대역사와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인 연극공연은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진행되며, 매일 6회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운영된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작

농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 당시 시상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군산 근대문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박물관 앞 광장에서는 매일 3회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래놀이 체험 행사가 열린다. 투호놀이, 공기놀이, 전래동화 딱지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주말상설행사를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전북대 'JBNU 지역발전연구원' 맞춤형 실행 체계 구축

지역 거점형 연구소 중심 정책 연구 및 기업 지원

전북대학교 'JBNU 지역발전연구원'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전략산업 육성을 이끄는 실행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설립된 'JBNU 지역발전연구원'은 남원발전연구소, 완주연구원, 익산동물헬

스케어연구소 등 지역 거점형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기업 지원, 국가사업 대응을 통합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원은 기초 지자체의 연구 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 교수진과 연구 인프리를 결합했다.

남원시 및 완주군과 협력해 대학 협력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지방보조금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4개

지역연구소를 중심으로 총 21건의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특히 익산동물헬스케어연구소를 통해 300억 원 규모의 '동물용의약품 임상 시험센터 구축'과 49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총 79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유치에 지원했다.

또한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115건의 애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6건과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14건, 기업 컨설팅 112건을 성사시켰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의 실행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산업, 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썬시봉 콘서트' 개최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3일 오후 5시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썬시봉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포크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썬시봉 멤버 송창식과 김세환을 비롯해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정훈희,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썬시봉은 1960년대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음악감상실이다. 특히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송창식, 이정희 등 젊은 음악인들이 통기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대중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후 썬시봉은 7080세대의 추억과 향수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정훈희는 17세에 '안개'로 데뷔한 이후 맑고 고혹적인 음색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다. 최근 영화 '헤어질 결심' 삽입곡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함춘호는 '시인과 촌장' 출신의 기타리스트로, 수많은 가수의 앨범과 공연에 참여하며 뛰어난 연주력과 음악성으로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을 통해 세대를 넘어 추억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성료

150명 비행 열전

정읍 칠보산 활공장에서 '제6회 정읍 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전국 동호인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치러졌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읍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동안 훈련해 온 비행 기술을 뽐냈다.

관객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큰 호응을 보였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열렸다. 치열한 점진 끝에 단체전 우승은 천안자유비행클럽이 차지했다.

개인전 조종사부는 고창군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 피승철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조급 조종사부는 패러투어 소



속 진정용 선수가 1위를 기록했다. 여성부와 장년부(시니어부) 통합 부문에서는 전주시패러글라이딩협회 이윤식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비행의 도전 정신과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사진=정읍시>

됐기를 바란다"며 "전국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이 정읍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주교대, 호국보훈의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전주교육대학교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지난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지성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지성 총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나라 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콘사노 부안서 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콘사노(단장 백윤정)가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특별 기획 공연 '나의 삶던 고향은 꽃피는 부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우수작품 레퍼토리 유형으로 추진된다. 관객 호응과 완성도가 검증된 기존 작품을 매년 재구성해 지역 유통을 확대하고, 친숙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며 공공 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연은 부안 시니어 예술단의 김늘이로 시작해 콘사노 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아리랑 랩소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마지막에는 전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고향의 봄'과 '아름다운 나라'를 제창하며 세대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마련한다.

콘사노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클래식 연주단체로, 클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시니어 예술단과 청년 연주자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세대 공감형 공연이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6월은 호국보훈의달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처할때마다 희생과현신으로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어려울 때 더 빛난 역사 변함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군산시, 8~1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접수

군산시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기간체근로자를 모집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세부 자격요건과 우대사항 등은 군산시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군산시 시민납세과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선발된 인원은 직무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는 한편,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단순한 징수 업무를 넘어 '따뜻한 세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기 시민납세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의 기회를 열어주는 일석산조의 효과가 있다며, 우리 지역의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한의과 순회진료 운영... 주민 건강관리 강화

익산시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관리에 나선다.

익산시는 12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한의과 순회진료를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순회진료는 인근 의료기관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합읍과 황등읍을 제외한 보건지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순회진료는 의과 공중보건과의 감소로 일부 보건지소의 내과 진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지소별 지정 요일에 맞춰 한의과 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순회진료와 함께 지난 2월부터 '다행한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다행한주 사업은 읍·면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 사업이다.

사업에는 한의과 공중보건과의 보건지소 간호인력이 참여해 이침과 근육테이핑, 건강상담 등 한방진료를 제공한다. 시는 순회진료와 다행한주 사업을 병행 운영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방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우수 외식업소 20곳 선정... 지정증 수여식 개최

정읍시가 엄격한 현장 평가를 거쳐 지역 대표 우수 외식업소 20곳을 선정하고 지난 5월 29일 보건소에서 '2026년 정읍 맛집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정읍 맛집'은 기존 일반음식점 15개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대상을 넓혀 총 20개소로 확대됐다. 최종 명단은 서류 심사 후 엄격한 비호출 현장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신규로 지원을 신청한 11개소와 기존의 명성을 유지해 온 9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선정된 20개 업소 대표자에게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안내했다. 고물가 시대를 맞은 외식업계의 현장 고충을 듣는 간담회 시간도 함께 가졌다.

시는 이번엔 지정된 업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시작으로 공식 누리소통망(SNS) 홍보, 홍보용 전단지(리플릿) 제작,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업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정읍, 농업인 지원 확대 2(題)

익산시, 시설원에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를 활용한 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멜론과 수박 등을 재배하는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3,400㎡ 규모 시설하우스에 8,000만 원 상당의 국산 장기성 PO필름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 기술지도와 재배관리 컨설팅을 병행해 농가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활용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산 장기성 PO필름은 시설원에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폴리올레핀 필름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필름보다 광 투과율과 보온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 PO필름은 일반 EVA필름보다 햇빛 투과율이 15~20% 높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를 1~1.3℃ 높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기존 PE필름은 통상 1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지만 국산 장기성 PO필름은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필름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시설재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 창업농 정착 돕는다

정읍시가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과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금 지급은 물론 창업 자금 대출, 농업 교육을 함께 연계해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18세부터 39세(1986년~2008년 출생자)까지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거나 2023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로 처음 등록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최중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 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3년 동안 매달 9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준다. 아울러 영농 규모를 키울 수 있게 최대 5억원까지 정책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연 1.5%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처음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상환 조건이어서 농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정읍시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읍 농업의 든든한 미래이자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청년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 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3년 동안 매달 9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준다. 아울러 영농 규모를 키울 수 있게 최대 5억원까지 정책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연 1.5%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처음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상환 조건이어서 농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정읍시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읍 농업의 든든한 미래이자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결과로 증명하겠다"

지지율 3.8%의 기적... 새만금 RE100 등 방향 제시

▲"잃어버린 군산 8년 끝내라는 준엄한 명령... 시민이 만든 기적"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3일 발표한 당선 소감문을 통해 "지지율 3.8%의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시작을 위대한 시민의 승리로 만들어준 군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넓은 정치와 기득권에 맞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잃어버린 군산 8년을 끝내고 다시 뛰는 군산을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승리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군산의 변화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준은 시민이 만든 기적"이라며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시장,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팀 승리 기대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효용성 반드시 증명하겠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앞선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됐다. 지지자들은 "군산과 전북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환호했고, 선거사무소 분위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 당선인은 "군산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원팀에 보내주시는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왜 필요한지, 그 효용성을 군산의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이 더 이상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산과 전북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과 군산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제는 이를 실제 일자리와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해내는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RE100부터 시민 중심 열린 행정까지... 5대 핵심 시장 제시

김 당선인은 앞으로의 주요 시장 방향으로 △새만금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수도 조성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별



김재준 당선인

트 구축 △군산조선소 재도약 및 친환경 경 선박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시장실 1층 개방 및 시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RE100 산업 전략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의 재선에 나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데이터 센터·이차전지·수소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군산에 유치하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미래를 꿈꾸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조선소 재도약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도시 군산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말이 아닌 결과"... 중앙 경협·네트워크 총동원

김 당선인은 "군산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청와대 추후관장과 국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군산 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과 핵심 사업을 반드시 쟁겨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실은 권위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장실을 1층으로 개방하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형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과정의 갈등과 경쟁은 이제 끝났다"며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시민을 품고 통합과 실용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득표율 속 승리 축하... "초심 잃지 않겠다"

한편 이날 오후 9시경 김재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잠정 득표율 76%)로 선두를 유지하자, 군산 선거사무소에는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승리를 함께 축하했다.

현장에서는 "다시 뛰는 군산", "김재준"을 연호하는 환호성이 이어졌고, 지지자들은 꽃다발과 박수로 승리를 축하했다. 김 당선인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끝으로 "오늘의 승리는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 위대한 역사"라며 "초심을 절대 잃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당선 소감

"시민 중심의 정읍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 이학수에게 다시 한번 정읍의 미래를 맡겨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읍의 발전을 계속 이어가고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명령을 받들



이학수 당선인

겠습니다. 민선 9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정착 지원, 어르신 복지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과 농생명산업,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정읍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적극 확보해 정읍 발전의 동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지 여부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된 정읍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시민 중심의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

청년정책 모델 구축

군산시 청년플 청년센터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주최하고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전국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기반 청년정책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 청년플은 2023년 첫 선정 이

후 매년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공모 선정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음도, 일상도, 동네도 천천히 다시 고쳐드립니다"를 슬로건으로 지역 청년의 관계 형성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도치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5 군산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청년들의 지역 잔류 이유 1위가 '가족·지인이 있어서(49.2%)'로 나타난 만큼, 청년들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연결망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참여해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

속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인 △'도치클럽'은 마음·물건·동네를 함께 돌보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수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도치살롱'은 마음 돌봄과 관계 회복을 주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오프형 강연 및 워크숍을 통해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플 관계자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서로 찔리지 않을 거리를 천천히 찾아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작은 연결이 쌓여 군산에 머물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공원 분수대 전격 가동

25개소 본격 운영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익산시 도심 곳곳이 시원한 물줄기와 빛이 어우러진 정량한 '오아시스'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여름철 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짜릿한 정량감과 쾌적한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공원과 녹지대 내 수경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민들의 여름을 책임질 수경시설은 중앙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공원, 마동공원 등 시 전역에 흩어

져 있는 바닷분수와 인공 시냇물(계류), 벽천, 인공폭포 등 총 25개소다.

시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시설 점검과 꼼꼼한 청소, 깨끗한 용수 교체를 진행하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하루 5회씩 시원한 물줄기를 탄력적으로 뿜어낼 예정이다.

특히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는 낭만적인 여름 밤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가동을 전면에 배치했다.

음악분수는 △오후 3시 30분 △오후 4시 30분 △오후 7시 △오후 8시 △오

후 9시에 각각 40분씩 가동돼 도심 속 야간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어린이들이 온몸으로 물을 맞으며 뛰어드는 바닷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8시에 회당 1시간씩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푸른 공원 속 수구치는 물줄기가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청량한 활력을 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여성농업인, 취약 농가 돌봄 나서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한국생활개선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행단)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북 7개 시·군에 걸쳐 '찾아가는 농촌사랑 안전지킴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활동은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농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마을 내 취약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 대상은 전주, 고창, 익산, 완주, 남원, 부안, 임실 등 7개 시·군 연합회 산하 취약 농가 약 100가구다. 생활개선회원들은 해당 가구를 1:1로 방문해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안전 점검 분야에서는 가정 내 문어발식 콘센트 정리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작업 안전 보호구를 직접 전달한다.

정서 지원 측면에서는 말벗이 돼 드리는 한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돌봄지킴이 키트'에는 햇반·쌀국수·쌀떡국 등 1회용 가공식품이 담겨, '안전지킴이 키트'에는 안전장갑·클로시·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영농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보호 용품이 포함된다.

각각 50세트씩 제작돼 취약 가구에 직접 전달된다.

이행단 회장은 "농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활동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전북 농촌 곳곳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부안군, 월평균 체류인구 ‘으뜸’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1위...사계절 축제 및 특화콘텐츠 연계 성과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선정 결과에서 4분기 월평균 생활인구 36만 3921명, 체류인구 31만 5106명을 기록한 가운데 2025년 연간 월평균 체류인구가 29만 2141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찾아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와 외국인인을 포함한 인구 지표로 지역의 실제 활력과 체류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분기별 월평균 체류인구는 1분기 22만 7655명에서 2분기 32만 784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분기 29만 7960명, 4분기 31만 5106명을 기록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체류인구 도내 인구감소지역 1위를 기록했고 4분기에도 2위를 유지하며 연간 체류인구 1위 달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군이 보유한 자연경관과 사계절 관광자원, 지역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분기에는 변산마실길 사스타데이 개최와 부안마실축제, 3분기에는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와 변산비치캠, 곰소갯길 축제 등이 체류인구 확대에 기여했다.

4분기에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2025 인문학노을축제가 3일간 총 12만 1000여 명이 방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85배로 202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월 7.7배, 8월 7.6배 등 주요 관광 시기에도 높은 체류배수를 기록해 체류형 연계인구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군은 이러한 체류인구 유입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안사랑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체류·소비 연계형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5년 연간 월평균 체류인구 도내 인구감소지역 1위는 부안의 자연경관과 사계절 축제,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생활인구 확대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류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인구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모악산의 아름다운 변신”

테마경관·포토존 조성

김제시는 모악산도립공원 곳곳에 테마경관 및 포토존 조성을 완료하고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성과 재미를 더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악산도립공원의 변화된 풍경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산책로와 맨발 힐링길인 '모악숨길' 등 걷기 좋은 길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모악숨길은 '모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이름을 붙인 맨발 힐링길로, 레터링 포토존을 설치해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님의 정원은 화사한 꽃과 감성 소품을 배치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독특한 발 모양 거울 포토존과 대형 은행잎 포토존, 빨간 장미와 함께 조성한 새송 포토존이 유쾌한 즐거움을 더하고 있으며, 드넓은 잔디광장의 액자형 포토존이 푸른 잔디와 모악산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다.

또한 산책로변 푸른 수국과 비베나 등이 어우러진 꽃길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악산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에 감성과 이야기를 더해 방문객들이 더욱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감성이 공존하는 모악산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다சி 찾고 싶은 도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자봉센터, 상서면 이동세탁차량 '뽕송이' 봉사 전개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규)는 지난 1일 상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뽕송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세탁차량 '뽕송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기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이불과 의류 등의 세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한 한 홀몸 어르신은 "뽕이 불편해 이불 빨래를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 깨끗하게 세탁해 주고 좋은 향기가 나는 이불을 가져다주어 너무 고맙다"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선 상서면장은 "우리 주변 이웃들의 행복한 삶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9~19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

착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 모 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 한다.

지원금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9월 9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서 김제시장 권한대행(4일차 부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 및 부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자 당선소감

"뜨거운 지지는 대도약을 이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심덕섭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저 심덕섭을 선택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야말로 고창대도약을 추동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등 고창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성심을 다해 고창군정을 이끌어하겠습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길 유망 후보, 장명식 후보, 정원환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창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당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고창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저는 민자유치, 관광산업으로 고창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실현해 왔습니다. 전북최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 단지 유치와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특화한 관광산업으로 고창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창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왔습니다.

2026.06.03 고창군수 당선자 심 덕 섭

앞으로 민선 8기에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진화시켜 도전적인 자세로 고창대도약을 이끄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농어민이 편안한 부자농어촌, 첨단에너지 순환 경제도시, 군민 모두가 밝고 행복한 복지도시, 세계가 찾아오는 관광객 2천만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 고창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과 복지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고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여러분의 거리에서 만났던 여러분의 모습들, 여름보다 더 뜨겁고 간절했던 군민의 소망과 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고향 고창이 더 풍족해지길, 사랑하는 내 가족의 삶이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여러분의 손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의 심덕섭을 만들어 주셨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건축과, 농번기 맞아 농가 지원 및 나눔 가치 실현

김제시는 건축과 직원들이 지난 2일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 돕기는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적기 수확 및 영농에 차질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공직사회가 앞장서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축과 직원 14여명은 청하면 소재의 농가를 찾아 고추 잡초매트 깔기 등 작업을 진행하며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내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진영 건축과장은 "현장에서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적극적인 일손돕기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단기집중서비스' 호응

가사·영양 지원 등 퇴원환자 일상복귀 도와

고창군이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승훈)이 거점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병원 퇴원 후 일시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

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1개월 동안 가사 지원, 영양 지원, 이동 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단기·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A씨는 "갑작스러운 수술 후 퇴원에 혼자 집안일을 하거나 거동하기가 막막했는데,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 준비와 가사를 도와주고 안부를 챙겨주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다만, △질병이나 부상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검사 등을 위해 단기간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장기적인 의료·요양 시설 입소 및 간병이 필요한 '와상 환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공백 없이 촘촘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가 온라인 판로 확대 나서

라이브커머스 교육 성료

김제시가 디지털 농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추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수 수요일 총 6회에 걸쳐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 및 송출 전략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생들은 라이브 방송 기획, 촬영 장비 활용, 쇼호스트 진행법 등을 익히며 실제 방송 송출까지 경험했다.

지난 5월 20일과 27일 양일간은 최근 준공된 지평선 스튜디오를 활용해 특별 라이브 방송 '김제가 키우고 라이브로 쓴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방송에는 미숫가루, 인삼식혜, 서리태 제품, 티백차, 장아찌, 늘보리쌀, 압화 수공예품 등 다양한 김제 농특산물이 소개됐고, 농업인이 직접 땅 흘러 키운 고품질 농특산물을 네이비쇼퍼라이브와 그립(Grip)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제품의 생산 과정과 특징을 직접 설명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방송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김제시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사진=김제시>

가공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방송에 참여한 김인숙 대표의 '압화공예' 상품은 개인 라이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작 25분 만에 준비된 기획세트 70개를 전량 완판하는 기염을 토하며 디지털 마케팅의 강력한 효과를 입증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상시 가동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

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지평선 스튜디오라는 혁신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연구모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농가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 보안면, 영농철 일손 돕기 추진

딸기 수확 및 농작업 보조

부안군 보안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안면 직원들은 농가를 방문해 가공용 딸기 수확 및 농작업 보조 등 영

농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협, 고창고 학생 대상 식품 분야 진로체험 교육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지난 1일 고창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 분야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고창 관내·외 학교와 일반인 대상의 진로·가공체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식품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고창고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식품분석 기초교육과 실습 체험을 운영했다.

특히 '식품의 당도 및산도 분석'을 주제로 베리류의 당도와 산도를 직접 측정 및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해보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연구원에 직접 방문해 다양한 식품 시료를 활용해 당도와 산도를 분석하고, 실험 장비를 직접 활용해보며 식품과학 분야와 연구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박성기 연구원장은 "이번 진로체험 교육이 학생들에게 식품산업과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여름철 재난·질병 선제 대응 총력 2(題)

순창군, 호우·폭염 대비 재난안전망 강화

순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조광희 순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회의(2차)'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 준비상황과 부서별 대처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13개 협업부서장 및 읍면장이 참석해 분야별 대응계획과 협업체계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기상 현황과 울어름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 방안, 부서별 후속 조치 및 재난 대응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순창군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 침수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

남원시, 소 3만8천여두 림피스킨백신 일제접종



남원시는 여름철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인 소 림피스킨(LSD)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총 38,697두로 전업농가 30,716두, 소규모농가 7,981두이며, 접종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업농가는 읍면동에서 백신 공급받아 접종대상 개체번호를 확인한 후 자율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활용한 백신 공급과 현장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접종유예 대상은 아픈 소, 출생 후 90일 미만인 송아지,

하고, 주민 대피체계와 비상근무 체계를 재점검했다.

군은 현재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책기간(5월 1일~10월 15일)을 운영하며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예·경보시설 369대를 활용한 실시간 상황관리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지역 4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 1주인 대피지원단' 운영과 자율방재단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저수지·도로·배수시설 등 주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재난도우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상특보 단계부터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예찰과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개체에 한하며, 백신 접종 후에는 소의 행동과 사료 섭취 등 세심하게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물을 급여하는 등 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백신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후 림피스킨 백신항체 형성 모니터링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림피스킨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의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조공법인, 농산물 통합마케팅 '최우수'

전북도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지역 농협 5곳 산지유통조직 선정

남원시는 남원시조공합동사업법인(이하 '남원시 조공법인')이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에 선정,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추가 인센티브를 배정받아 추가 사업비 9천 1백만 원(도비 40, 시비 24, 자부담 27)

을 확보했으며, 이에 올해 최종 사업비 278백만 원(도비 122, 시비 72, 자부담 84)을 확보했다. 추가된 사업비로 농가 조직화교육, 마케팅 사업 등에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내 5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통합조직으로 선정돼 신규 자금 113억 원을 3년간 0.5% 이자로 지원받게 돼 기존 지원자금 108억 원을 포함해 총 221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러한 자금은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인 관내 5개 농협에서 농가 경영 안정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농가 선지급금, 계약재배에 따른 계약금 등 원

물 확보 및 농가재 일괄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돼 주요 농산물 6개 품목을 핵심 품목으로 승인받아 국비를 우선 지원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통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2025년에는 통합마케팅 매출 1,275억 원을 달성했다.

남원시조공합동사업법인(대표 이창준)은 "앞으로도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써 공선 조직 육성에 힘쓰고 산지조직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민이 만드는 순창장류축제" 참여단체 공모

체험·안내·환경정비 등 분야 외국인 통역 지원 인력도 모집

순창군과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장류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 사회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이자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제21회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

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사회단체와 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전통문화 및 장류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축제 홍보, 관광객 안내, 교통 및 주차 안내, 환경정비, 셔틀버스 안내, 관광안내소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다. 특히 예비 글로벌 축제에 걸맞은 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통역 지원 분야도 함께 모

집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순창장류축제는 행정과 추진위원회만 하는 축제라 아니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대표 축제"라며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안전 취약지 5개 지역 CCTV 확대

삼레터미널·우석대위 셋길 등 치안망 보강 실시간 대응 강화

완주군이 밤길 치안 사각지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치안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완주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예방이 시급한 안전 취약지 5개소를 최종 확정하고, 총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12대를 신규로 설치한다.

방법 카메라 설치 거점으로는 삼레공용버스터미널 인근, 우석대학교 뒤 셋길, 백제예술대학교 하곳길, 용진삼거리 인근, 마음사랑병원 입구 등 총 5개소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범 카메라는 범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이동 동선 확인 등 범죄 대응과 군민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202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방범 장비가 없던 2개소인 봉동읍 둔산유치원 앞과 이

서면 별송유치원 앞에 대해서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의 방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취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시티브이(CCTV)에 대해서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6개소의 차량번호인식 시시티브이(CCTV) 6대를 교체 완료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당선 소감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유희태입니다.

부족한 저 유희태에게 다시 한번 완주의 미래를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결과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군민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까지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함께 뛰여주신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흘린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버티고 응원해주신 가족들에게도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저를



유희태 당선인

지지하신 분도,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모두 소중한 완주군민입니다. 감동과 대립을 넘어 하나 되고, 더 큰 완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많이 현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군민보다 먼저 걱정하며, 군민보다 늦게 쉬겠습니다.

농민의 땀을 기억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며, 청년의 미래와 어르신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보다 내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민이 이겼습니다. 완주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 당선 소감 전문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6.3지방선거를 통해 저 최영일을 선택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오은미후보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으므로 승패를 떠나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순창발전을 위해 또 다시 힘합쳐 노력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보여주시던 군민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와 협력과 같이 다가오는 4년 동안에도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최영일은 민선9기에 군민과 함께 할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 등 10가지 순창비전 공약을 말



최영일 당선인

씀드렸습니다. 이 약속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 군민들의 선택에 믿음과 신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최영일은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민선9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순창을 발전시키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 민원실 barrier프리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남원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barrier프리(Barrier-Free)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도입한 순번대기시스템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민원인은 키오스크를 통해 업무별 번호표를 발급받아 순번에 따라 안내 받고, 창구별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barrier프리 기능을 적용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음성인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을 갖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barrier프리 순번대기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과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족 학교·온라인 범죄 예방교육

완주군이 최근 급증하는 학교 내 성폭력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정 내 부모들의 주체적인 지도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밀착형 예방 체계 가동에 나섰다.

완주군가족센터는 지난달 30일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눠 연령별 맞춤형으로 전개됐다.

저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 상황 이해와 대처 방법,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상황 인지 및 안전 수칙 등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학년 대상 교육에서는 피해·가해·방관 상황별 대처 방법과 온라인상 위험 상황 예방 교육을 촘촘하게 진행했다.

신항 센터장은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디지털 교육 '성과'

남원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일 남원시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과 창업에 희망하는 지역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기간 중 조기 취업에 성공한 5명을 제외한 교육생 전원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교육 과정은 브랜드 콘텐츠 기획, SNS 마케팅, 영상·이미지 제작, 스마트스토어 운영, AI 활용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생들은 지역 대표 축제인 '총항제' 현장 실습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통해 굿즈 기획부터 제작, 판매까지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다졌다. 이들은 굿즈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원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 밥상'에 기부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도 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여성들이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성공적인 구직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연계 아동 동물교감 치유

전주기전대 반려동물학과 협력 돌봄기관 등 100여명 아동 대상

완주군이 학업 스트레스와 또래 관계 갈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전문 기관과 손잡고 촘촘한 정서복지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최근 이서정소년문화의집을 시작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교감 치유 과정'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완주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기전대대학 반려동물학과와 협력해 진행하며 청소년센터 '고래', 지역아동돌봄센터 '라운돌

이터', 선덕보육원 등에서 1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보조동물을 매개로 한 참여자 초기 상담, 친밀한 유대감 형성, 감정 표현하기, 추억 사진첩 만들기 등 다채로운 밀착형 과정으로 구성되어 첫 회차부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생명과의 올바른 교감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원적 공감 능력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완주군 아동과 청소년들이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미스트롯 김다현 '임실 봉어섬' 응원 발매

임실군이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진 가수 김다현이 부르는 옥정호 봉어섬을 소재로 제작한 홍보가요 '봉어섬'이 첫 선을 보였다. 군은 지난달 28일 임실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옥정호 봉어섬과 선진강의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서정적인 트로곡인 '봉어섬'을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정식 발매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곡은 임실출신 작가인 전상훈 씨가 임실군에 제공한 시'봉어섬'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미스트롯2와 현역가왕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은 가수 김다현 양이 노래를 불렀다. 작곡과 편곡에는 윤도우·김상규씨가 참여했으며, 작품의 완성도와 대중적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홍보가요는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옥정호와 봉어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임실군 대표 관광자원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서정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번 홍보가요는 옥정호 봉어섬의 감성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광 홍보 콘텐츠로서 새로운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21회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게이트볼대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달 29일 장수읍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제21회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체육회와 장수군게이트볼협회,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했으며, 하기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선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에는 관내 7개 읍·면 15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참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대회 결과, 종합우승(장계B팀), 준우승(장수B팀), 장려상(천천팀,장계A팀)을 각각 수상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학천지구 통합개발 브랜드 명칭' 군민 공모

진안군이 지역 문화·여가·복지의 핵심 거점이 될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의 브랜드 명칭을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전격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천지구 내에 조성 예정인 윤가족 다목적마루, 복합플랫폼,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주요 시설을 하나로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명칭 선정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자격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 작품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작은 1차 위원회 심사(상징성·대표성·창의성 평가)와 2차 온·오프라인 설문 투표(선호도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대상 1명에게는 3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20만 원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최고'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적 최우수 S 등급 공격적인 판로 개척 등 호평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6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를 받아 도비 3천 9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3개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조직화와 규모화, 전문화 등 산지 유통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무주군은 무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양시춘)을 중심으로

로 농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반딧불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 공격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한 점 등이 호평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지난해 농산물 취급 물량은 10,372톤으로 전년 대비 9% 성장했다. 매출실적도 23.5% 증가한 5백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S등급이라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행정과 산지 유통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참여한 준 농업인들과 유통 현장에서 직접 땀 무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관계자들 덕분"이라며 "인센티브로 확보한 사업비는 반딧불 농산물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산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APC)을 현대화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산지 유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유통 전략을 수립하고, 무주 반딧불 농산물이 제값 받고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정인승 선생 추모제 거행

애국정신·한글 사랑 되새겨

장수군은 지난 1일 계북면 정인승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제40주기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종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진현 유족대표,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김종열 회장의 초헌례, 양옥길 계남면 유학의 아헌례, 박세정 계북면 유학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되며 민족문화 보존과 한글 발전에 평생을 바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연희전문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매진했으며, 조선어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보급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한글'지 발행을 주관하고 우리



장수군은 지난 1일 계북면 정인승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제40주기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 <사진=장수군>

말 체계화 작업의 핵심 연구에 참여한 등 민족문화 보존과 국어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속에서도 한글 연구와 보급에 일생을 바친 대표적인 한글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열 회장은 "건재 정인승 선생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

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장수군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며 "앞으로도 선생의 애국정신과 한글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들이 그 가치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과 문화·교육 활동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치매 조기검진 연중 운영

임실군치매안심센터, 고령층 매년 정기검사 권장

임실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치매검진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군민이다.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발병 위험이 높은 집중 관리 대상인 만큼,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치매 검진 체계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세분화 되어 운영된다. 1단계인 선별검사와 2단계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 가능하다.

협약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3단계 감별검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진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실군치매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진료소로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대곤 치매안심센터장(보건의료원장)은 "어르신들의 치매 걱정 없는 삶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기 검진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인 검진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음악분수 정상 가동

영화제 기간, 풍성한 볼거리 기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시설 운영을 중단했던 무주군이 지난 1일부터 무주읍 남대천 일대 야간경관 시설물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와 하절기 무주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것으로, '별빛 다리'는 영산송출과 함께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음악분수'는 정오부터 오후 1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하루 2번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무주안성낙화놀이'도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안성낙화놀이보존회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낙화놀이 관람을 비롯해 소원 낙화봉 만들기 체험(1만 5천 원, 사전



예매)과 먹거리 부스, 지역 프로그램 홍보·체험, 특산물 및 로컬상품 판매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낙화놀이 시연은 5일과 6일 모두 저녁 8시 40분부터 시작되며, 시연 전에는 마술공연, 국악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안성낙화놀이보존회에 따르면 행사는 관람객 안전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

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네이버 스토어'에서 '무주안성낙화놀이'를 검색하며 1인 19,900원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입장 금액 중 1만 원 상당은 현장 사용 쿠폰으로 환원될 예정으로, 먹거리 부스와 로컬 존 등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 소감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임실군수 당선인 한득수, 머리 숙여 깊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임실군 가족유전 자원센터'를 설립해 임실 농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임실의 거대한 도약을 이끌 국제사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이 결합하여 예산 1조 원 시대를 완성할 것입니다.

전국 규모의 '이통장영수원' 건립비 400억원과 오랜 숙원이었던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 사업비 361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옥정호의 가치를 완성할 '옥정호 수변관광 순환도로' 연결에 필요한 총사업비 약 1,00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확정된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추겠습니다.

우리 임실에는 첨단 로봇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 기술력의 기업인 '일진제강'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진제강의 탄탄한 인프라와 새만금 로봇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임실을 새만금 피치컬 AI 산업의 핵심 배후도시로 당당히 키워내겠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은 임실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로의 발걸음은 우리 임실의 농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든든하게 채워줄 '더 큰 임실'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오늘로 모두 내려놓아 주십시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이웃이고 가족인, 따뜻한 우리 임실입니다. 니편 내편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임실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것만 있을 뿐입니다.

'힘 있는 여당' 군수로서 약속드리는 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임기 내에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약 19% 수준에서 25%까지 끌어올려 '365일 월급 받는 농민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매년 농가와 지역 경제에 직접 스며들 '임실형 농촌기반소득'을 통해 연간 약 4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족 분노와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우리 임실은 12년 동안의 무소속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보내주시 지지와 믿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켜보면 우리 임실의 민선 31년 역사는 '무소속의 벽'에 가로막혀 갈증을 겪어왔습니다. 약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실은 무소속 체제였습니다.

물론 지난 12년 동안 우리 임실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전임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이 함께 흘린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무소속 체제의 한계 속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지하거나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힘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군수로서 저는 군민 여러분께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예산이 5,300억 원인데, 어떻게 1조 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는 선거용으로 급조된 과장된, 구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임실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이자,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 구체적인 첫걸음은 임실군 산업의 근간인 '농축산업'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임기 내에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약 19% 수준에서 25%까지 끌어올려 '365일 월급 받는 농민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매년 농가와 지역 경제에 직접 스며들 '임실형 농촌기반소득'을 통해 연간 약 4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족 분노와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진안군,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빠망카드' 하나로 통합 지원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인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며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사업 선정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진안군의 통합복지 플랫폼은 기존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통비와 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에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진안군은 '빠망카드'를 기반으로 교통복지와 생활복지, 각종 정책수당은 물론 기본소득까지 통합 지원이 가능한 일카드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빠망카드 한 장으로 다

양한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기본소득 지급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 관리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운영의 체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진안군의 플랫폼 구축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과 운영 준비를 마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별도의 구축 기간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과정 없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기본소득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군가족센터, 맞벌이 가구 템플스테이 진행

고창군가족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선운사에서 맞벌이 9가구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도솔암 포행 스님님과 차담 △사찰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바쁜 일상속에서 TV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생활하니, 몸과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센터장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 소통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 관내 가족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조손 가구,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삼기면 '오리해'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삼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금마면 위치한 오리요리 전문 식당 '오리해(대표 황대희)'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현판식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공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해 착한가게 가입을 축하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리해'는 매월 3만 원을 정기 후원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된다. 기부금은 삼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랑가득 삼기밥상 △이웃애(愛)돌봄단 △희망보금자리 등 특화사업에 사용된다.

황대희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착한가게 가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임실호국원 방문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장지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지성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헌화·분향·묵념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지성 총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주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나라 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따뜻한 사랑 실천

이웃돕기 성금기탁 작은 목욕탕 청소 등 눈길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4명이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협의기구로, 주민 참여형 사업 기획·운영, 행정 자문·예산 심의, 교육·홍보 등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마을 가꾸기와 △취약계층 돌봄 연계, △지역축제·문화 사업,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하며, 올해는 맨스 and 색소폰, 통기타, 맞춤형 근력 교실, 라탄공예, 생활자수, 손뜨개, 아크릴화 등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내 반디 작은 목욕탕의 청소 봉사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월 개최됐던 '제7회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 수익금 중 2백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1백



만 원, 설천초등학교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1백만 원을 쾌척해 눈 /무주=최의호 기자



정읍 덕천면, 무료 아이스크림 방앗간 운영

정읍시 덕천면이 이른 무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의 여름나기를 돕고자 행정복지센터 안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아이스크림 방앗간'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덕천면 청년회가 주관하고 관내 여러 기관 단체가 후원해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비용을 내지 않고 시원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김성진 덕천면 청년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작은 간식으로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주 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가족센터, 가족들과 '힐링 나들이'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가 지난달 30일 사례 관리 가정 30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완화를 위한 '가족 나들이 과정'을 본격 추진했다.

이번 나들이는 참여 가구들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섬진강수달 생태공원 등을 방문해 일대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며 가족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다채로운 치즈 문화

학습과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수달과 다양한 어류 생태를 관찰하며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완주군이 운영하는 실감형 가상현실 수소 버스를 활용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참여 가구들은 가상현실을 접목한 색다른 이동 환경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완주=김명근 기자



남원 송동면, 취약계층 가구에 '사랑의 빵' 나눔

남원시 송동면은 1일1가구 소동행정을 추진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빵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빵 나눔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함께하면 좋은 세상' 3회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꿈드레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회장 임광호)가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남원시 이백면 소재 허브엔베이커리 제빵소에서 직접 빵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했으며, 나눔을 위한 총 250개의 빵을 준비했다.

송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빵을 전달받아 마을 곳곳의 독거노인 및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건강 및 생활상태를 함께 살피며 정서적 돌봄까지 연계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와 고독감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 해리면지사협,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고창군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규, 홍정목)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가구를 선정해 성인용 보행보조기(실버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리 지사협 위원들은 보행보조기를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법 안내와 함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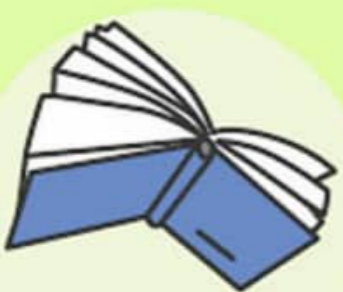
보조기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다리가 아파 외출하기가 늘 꺼려졌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재규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전달된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답답한 일상에 든든한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一事一言〉



6·3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이제는 '하나 된 전북'으로 도약할 때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6·3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도민들의 엄숙한 선택은 명확한 수치로 나타났고, 전북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의 지도가 그려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를,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승자와 패자를 떠나 전북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발로 뛴 모든 후보의 열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으로 기억될 듯싶다.

일찍이 본보가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지적했듯,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상호 비방과 폭로전만 난무하는 혼탁 양상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의 불법 선거 정황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네거티브 공세와 무고성 의혹 제기는 지역 사회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은 결국 도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지역의 에너지가 갠다"는 해악이다." (지난 본보 칼럼 중)

과거의 경고대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과 갈등의 골은 깊다.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된 불법 행위나 시시비

비는 이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

법적인 책임 추궁은 기관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이제 선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선거라는 짧은 레이스는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전라북도의 시간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에 가장 시급한 것은 '통합'이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과 분열된 지역 여론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나간 일들은 과감히 뒤로하고, 이제는 반목과 갈등을 넘어 하나의 전북으로 뭉쳐야 한다.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도민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낙선자 역시 결과에 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힘을 보태야 한다.

당선인들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전북의 미래 가치를 높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북이 '새로운 새만금시대'를 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변곡점이다. 새만금을 중심

으로 한 글로벌 허브 구축과 친환경·미래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당선인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 외쳤던 초심을 잊지 말고,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전북에 상처뿐인 영광이 될지, 아니면 위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지는 전적으로 당선인들의 행보와 도민들의 통합 의지에 달려 있다.

당선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직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이제 갈등의 페이지를 접고, '도약하는 전북'의 새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사설

9조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9조를 현실로 만드는 행정력이다

전북도와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로봇산업,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번 투자는 침체된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 수십년간 개발 지연과 투자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새만금이 국가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열렸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촉매가 아니다. 투자 규모의 화려함에 취하기보다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냉철한 행정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형 투자계획이 발표됐지만 일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졌고, 일부는 축소되거나 지연됐다. 투자협약(MOU)은 시작일 뿐 결과가 아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수소산업은 막대한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교통망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 의지를 밝혔더라도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 성공 여부는 기업보다 행정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이제 투자 유치 성과를 홍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규제 해소와 기반시설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 투자 효과가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9조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도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다. 전북의 미래를 바꿀 진짜 성과는 투자 발표가 아니라 투자 집행에서 나온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9조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9조를 끝까지 현실로 만들어낼 행정력이다.

독자 투고

아이들의 안전,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페달을 멈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이나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는 '스탠딩' 같은 묘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하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는 고정 기어(Fixed Gear) 자전거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트랙 경기용으로 개발되어 주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특성상 돌발상황에 자전거를 멈추기 어려워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픽시 자전거는 최고속도가 50~60km에 달한다. 또한 일반 자전거는 손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해 멈추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페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면 속도가 줄

면서 미끄러지듯 멈추는 만큼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2배나 길어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중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해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픽시 자전거는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장비일 뿐, 도로 위에서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주덕진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한성원

오늘의시

편지 / 송기원

어머니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뜨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일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죽는 새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슬에 젖은 발자국 소리가
지금 산야를 울립니다.
어머니
이름 없는 산야의
이름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들은 잡초들 무성한

무덤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뜨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눈부신 새벽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그토록 긴 밤을 떠돌던
많은 낮들과 함께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서사'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일반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장수지국 010-8628-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익산시, 그린바이오·동물헬스케어 중심도시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전국 최초 가동 29개 기업 입주 올해 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준공 아이디어부터 제품화까지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완성

익산시가 첨단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육성과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시는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농생명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와 '동물헬스케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과 함께 단계별 고도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 '전국 최초' 가동...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 본격화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보육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전국 5개 조성 지역(익산, 평창, 진주, 예산, 포항) 중 가장 먼저 본격 가동했다.

캠퍼스에는 지난 4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유망 벤처기업이 입주를 마친 데 이어, 최근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이 2차 입주기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2차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히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산학협력 및 사업화 연계 등 성장 단계별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기반 마련...전주기 지원 인프라 완성

이와 함께 익산시는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2024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해 성공적으로 가동 중이다.

해당 센터는 동물용의약품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산·학·연의 연구 과제와 신약 개발 시험 등을 수주하며 대외 신뢰성을 확실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를 미래 바이오 산업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아 전방위적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올해 12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의 설계에 착수한다.

향후 '바이오팩토리'까지 완공되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비임상·임상평가, 인증, 제품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완성된다.

◆ 규제 완화 및 정부 계획 연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 완화와 영도 확장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종합 분석 시스템 운영은 물론, 규제 자유특구 및 농생명지구 지정을 추진해 클러스터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나아가 정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익산시 전략 사업이 반영되도록 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는 지역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열어가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탄탄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익산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생명산업의 미래가 원광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글로벌대학 30,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을 비롯해 재학생 인당 장학금 전국 8위*, 대학 브랜드평판 호남권 1위**, 국내최초 다학제(4·2년제) 운영 등 현대판 실적으로 빛나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입니다. 개교 80주년과 통합 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원년을 맞이하여 원광대학교는 우수한 역사와 혁신적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허브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기준 **2025년 12월 4일 발표 분석결과

The Life Hub of Korea : WONKWANG UNIVERSITY

- + 생명산업 융합교육 체계화
- + 생명산업 생태계 거점화
- + 글로벌 생명인재 양성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